

농촌 청소년의 희망과 문제행동, 성적 및 학업지연행동과의 관계*

Levels of Hope and their Relationship with Problem Behavior, Academic Records and Procrastination among Rural Adolescents

이창식**

Chang Seek Lee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levels of hope and their relationship with problem behavior, academic records and procrastination among rural adolescents. The participants were 579 rural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rom three counties.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athway and agency thinking of rural adolescent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and anxiety, and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academic records and procrastination. But only agency thinking of rural adolescent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delinquency among problem behaviors. Second, as a result of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groups of high hope of rural adolescents were lower in depression and anxiety than groups of low hope, but were higher in academic records and procrastination.

* 이 논문은 2011년도 한서대학교 교비 학술연구 지원 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e-mail: csl@hanseo.ac.kr

주요어(key words): 농촌청소년(Rural Adolescent), 희망(Hope), 문제행동(Problem Behavior), 우울(Depression), 불안(Anxiety), 성적(Academic Records), 학업지연(Academic Procrastination)

1. 서론

희망은 인간 삶의 본질 그 자체이다. 희망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찾는 과정으로(김달숙, 1992)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의 성장과 삶의 의미를 찾게 한다. 그래서 희망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도전적이며, 실패보다는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달성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지각하며,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하는 특성을 보이지만, 희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실패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며,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한다고 말한다(Snyder, 1994b). 특히, 희망은 미래를 향한 청소년들이 삶의 도전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정서적 변화이기도 하다. 따라서 희망은 우울, 공포, 불안, 외로움, 죄책감, 분노, 수줍음 및 수치심 등의 부정적 정서(장희숙, 2004)와 갈등 속에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해가는 청소년의 성장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겠다(권경희, 2008).

최근 청소년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희망의 이러한 기능적인 측면이 실증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즉, 희망은 학교생활적응의 보호요인이 될 뿐 아니라(김택호 & 김재환, 2004), 고위험집단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도우며(나혜진, 2009), 학교생활적응을 유지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혜경, 2008). 십대 미혼모들에게는 희망이 새로운 삶의 개척과 사회복귀 과정의 지지체계로 작용하며(김은희, 2003; 정마리아, 정문숙, & 김신정, 2000; Clifford & Bryczynski,

1999), 가출 청소년에게도 희망은 회귀과정의 중요한 경험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정운숙, 2002). 또한 희망과 학업적 성취목표 지향성의 수준에 따른 인터넷 게임중독 성향에 관한 연구(홍예영, 2006)와 비행 수준과 희망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오혜진, 2006)를 통해 희망이 주는 긍정적 의미가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렇듯 대다수의 연구들이 희망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연구결과(Barnum, Snyder, Rapoff, Mani, & Thompson, 1998)를 뒷받침 하면서, 급증하는 비행 및 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관성 있는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다.

한편 농촌 청소년들은 도시의 청소년들에 비하여 문화, 경제, 교육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여건에 있어 희망수준이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농촌 청소년들의 희망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문제 행동, 성적 및 학업지연행동 등 청소년 성장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변인들과의 관련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여 이들의 적응과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선행연구를 분석해보면 남자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희망과 정신건강과의 관계(현미열, 이종은, & 박선남, 2003),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희망과 우울 및 불안의 관계(Snyder, Hoza et al., 1997; Snyder, 1994b),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희망과 우울의 관계(한금선 외, 2010; Snyder et al., 1991),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희망과 비행의 관계(오혜진, 2006; 홍예영, 2006; 박소연, 2009) 등 희망과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가 다소 있는 편이다. 또한 초등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희망과 학업성취와의 관계(Snyder, Hoza et al., 1997; 조한익, 2011; Snyder, Harris et al., 1991; 조한익, 2007; Snyder, 2000) 등이 있으며,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희망과 학업지연행동과의 관계(Alexander & Onwuegbuzie, 2007)가 있으나

농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농촌 청소년을 대상으로 희망 수준을 파악하고 이러한 희망 수준이 이들 청소년의 문제행동, 성적 및 학업지연행동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파악하여 농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첫째, 농촌 청소년의 희망과 문제행동, 성적 및 학업지연행동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농촌 청소년의 희망 집단은 문제행동, 성적 및 학업지연행동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로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희망의 개념

희망이란 인간을 움직이게 하고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게 하는 인간 행동의 필수적인 조건이라 전제하고, 희망을 목표 도달, 목표의 중요성, 그리고 인지적, 정서적 행동과 관련된 목표 획득에 대한 기대로 정의하였다(Stotland, 1969). 반면 희망의 개념을 측정 가능한 대상으로 발전시킨 Snyder 등(1991)은 희망이란 성공적인 경로와 주도가 상호작용적으로 조직된 사고의 긍정적 동기 상태로 정의하였다(Snyder, Irving, & Anderson, 1991). 즉, 희망은 원하는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찾아내고 이러한 경로를 활용하고자 하는 동기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한다(Snyder, 1994a). 구체적으로 희망은 실천 가능한 목표를 갖는 것,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방법인 희망경로를 탐색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기 위한 동기인 희망주도를 갖는 것이

다(Snyder, 2002).

희망(hope)의 구성 요소는 목표, 경로사고, 주도사고이다(Snyder, 2002). 첫째, 인간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목표 지향적이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행위와 연관되어 있고,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기대는 희망과 연관된다. 즉, 목표는 희망 이론을 안착시키는 인지적 구성요소이다(Snyder, 1994a; Snyder, Sympson, Michael, & Cheavens, 2000). 둘째, 경로사고는 목표를 추구하는데 있어 가능한 방법들과 대안들을 생성해 낼 수 있다는 개인의 지각을 의미한다. 이것은 바라는 목표를 위한 경로를 찾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기언어도 반영한다. 즉, '나는 이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적 메시지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Snyder, Lapointe, Crowson, & Early, 1998). 셋째, 주도사고는 희망의 동기적 요소로서 목표달성을 위해 다양한 통로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지각이다. 이것은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있다'와 같은 내적 대화로 표현된다. 따라서 주도사고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커다란 중요성을 지닌다. 즉,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동기화시키기 때문이다(Snyder, 1994b).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전적이며, 실패보다는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 달성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지각하며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희망 수준이 낮은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며, 실패에 초점을 맞추고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에 관심을 두며, 부정적 정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였다(Snyder, 1994b; Seligman, 1995). 장애물에 봉착했을 때는 희망수준이 높은 사람이 대안적인 방법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더 많은 대안을 찾으려고 하고(Snyder, Parenteau, Shorey, Kristine, Kahle, & Berg, 2002), '이 일은 잘 될 거야', '난 할 수 있어'라고 자신에게 말한다. 목표를 수행하는 데

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희망수준이 높은 사람은 삶에는 난관이 있기 마련이라고 지각하는 반면 희망수준이 낮은 사람은 그것을 자신에게만 일어나는 장애로 지각하게 된다(Snyder, Lapointe, Crowson, & Early, 1998). 그리고 사회적 지지망과의 관계에서 희망수준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지지망을 생각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희망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도와줄 사회적 지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지지를 구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Snyder, Lapointe, Crowson, & Early, 1998).

한편 희망을 측정하는 도구는 차이가 있지만 노지영(2004)은 청소년의 희망 수준은 중 이상으로 보고하고, 이는 성인(최상순, 1991)이나 교사(김정남 & 박영숙, 1999), 그리고 중년기 여성보다(윤재연, 2001) 낮은 수준이며 노인보다는(김숙희, 200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 청소년의 희망 수준을 측정한 연구가 없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2. 청소년 희망 관련 선행연구

2.2.1. 희망과 문제행동

문제행동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구분한다(Achenbach & Edelbrock, 1983). 내재화 문제행동은 외로움, 사회적 철회, 불안, 우울증 등의 정서 문제를 뜻하며, 외현화 문제행동은 공격성, 과잉활동, 다른 아동을 못살게 구는 것, 거짓말, 도벽 등 행동문제를 뜻한다(Achenbach & Edelbrock, 1983).

먼저 희망과 내재화 문제행동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남자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희망점수가 높을수록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 편집증 및 정신증 등의 정신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현미열, 이종은, & 박선남, 2003),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희망 수준이 높은 경우 우울 및 불안이 유의하게 낮고, 특히 희망수준이 낮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희망 수준을 높이려는 처치를 했을 때 긍정적인 정서는 증가하고 우울과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nyder, Hoza et al., 1997; Snyder, 1994b).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희망과 우울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한금선 외, 2010), 이러한 이유는 희망이 높은 사람이 목표를 추구하면서 삶을 긍정적으로 유도하기 때문이다(Snyder et al., 1991).

어린이의 희망과 우울증의 연구(Snyder, 2002)에 의하면 희망이 높은 어린이는 우울증이 낮게 나타났는데 높은 희망을 가진 어린이들은 외로움을 덜 느끼고 사회적인 능력이 뛰어나며 사회적인 지지를 더 많이 느끼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한편 희망과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구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희망은 비행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고(오혜진, 2006), 중학생을 대상으로 희망과 인터넷 중독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홍예영, 2006).

박소연(2009)은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희망을 주도사고와 경로사고로 구분하여 비행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남자 청소년은 주도사고가 비행을 설명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고, 여자 청소년은 주도과 경로사고 모두가 비행의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희망과 문제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희망은 내재화 문제행동뿐만 아니라 외현화 문제행동과 부적 관계가 있다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가 농촌 청소년들에게 적용 가능한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2.2.2. 희망과 성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Snyder, Hoza et al., 1997; 조한익, 2011)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Snyder, Harris et al., 1991; 조한익, 2007; Snyder, 2000)에서 희망은 학업성취와 정적 상관이 있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높은 희망을 가진 학생들은 낮은 희망을 가진 학생들보다 자신들이 바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고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계속적으로 동기화시키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Snyder, 1994b). 또한 희망이 높은 학생들은 희망이 낮은 학생들과 비교해볼 때 학습에서 적절한 단어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과제에 열중하기 때문에 학업성취도가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다(Snyder, 2002). 그리고 희망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낮은 수준의 희망을 가진 학생들과 비교하여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성취하려고 하며, 학습내용을 학습하기 위한 잘 조직된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조한익, 2009).

종합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희망과 학업성취는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어 이 연구에서는 농촌 청소년을 대상으로 희망과 성적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2.3. 희망과 학업지연행동

지연행동은 과제의 착수와 완성을 불필요하게 미루는 것을 의미하며 (Ferrari, 2001), 학업지연행동은 불편함을 느낄 때까지 불필요하게 학업과제 또는 시험공부를 미루거나 정해진 시간 안에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의한다(Solomon & Rothblum, 1984).

국내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업지연행동을 보고서 작성, 시험공부, 교재읽기 과제에서 약 30~66% 정도가 지연행동을 보이고 있으며(박승호 & 서은희, 2005; 윤숙경, 1997), 외국의 경우 대학

생들의 50~70% 정도가 스스로 지연행동을 한다고 보고하였다(Haycock et al., 199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의 46%가 보고서 작성 지연, 27.6% 시험준비 지연, 30.1% 주중과제 지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Solomon & Rothblum, 1984), 대학원생의 41.7%가 보고서 작성 지연, 39.3% 시험준비 지연, 60.0% 주중과제 지연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Onwuegbuzie, 2004).

나아가서 Chu와 Choi(2005)는 학업지연자를 능동적 학업지연자와 수동적 학업지연자로 구분하였는데 능동적 학업지연자는 시간압박 속에서 일을 하고 보상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계획한 것을 마치는 사람이며, 수동적 학업지연자는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못하거나 시간 내에 일을 마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희망과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희망은 실패의 두려움과 관련한 학업지연행동을 예측(Alexander & Onwuegbuzie, 2007)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희망이 높을수록 학업지연행동이 낮음을 규명하였다.

종합하면 희망과 학업지연행동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며, 농촌 청소년을 대상으로 희망과 학업지연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3.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조사대상 지역은 충남도의 서북부 지역 D, H, T의 3개 군에 거주하는 남·녀 중·고생 각각 300, 전체 600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각 학교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설문지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저사방법은 조사대상에게 설문지를 배포 후 바로 회수하도록 의뢰하였다. 미회수된 설문지와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579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여학생이 57.6%로 남학생 42.4%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평균 15세였고, 학교급은 중학생이 50.3%로 고등학생과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가족은 가장 많은 72.9%가 양친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었으며, 다음 11.9%가 조부모와 부모 및 자녀로, 9.5%가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구 분 | | 빈 도 | % |
|-------------------|-----------|-----|-------|
| 성별 | 남 | 245 | 42.4 |
| | 여 | 333 | 57.6 |
| | 전체 | 578 | 100.0 |
| 연령 (평균=15.031) | 13세 이하 | 93 | 16.1 |
| | 14세 | 109 | 18.8 |
| | 15세 | 159 | 27.5 |
| | 16세 | 113 | 19.5 |
| | 17세 이상 | 105 | 18.1 |
| | 합계 | 579 | 100.0 |
| 학교급 | 중학교 | 291 | 50.3 |
| | 고등학교 | 287 | 49.7 |
| | 합계 | 578 | 100.0 |
| 가족구성 | 양친부모+자녀 | 416 | 72.9 |
| | 한부모+자녀 | 54 | 9.5 |
| | 조부모+부모+자녀 | 68 | 11.9 |
| | 조부모+손자녀 | 9 | 1.6 |
| | 기타 | 24 | 4.2 |
| | 합계 | 571 | 100.0 |

3.2. 조사도구

3.2.1. 희망

농촌 청소년의 희망을 측정하기 위해 Snyder 등(1991)이 개발한 특성희망 척도를 최윤희, 이희경, 이동귀(2008)가 한국 실정에 맞게 타당화한 척도(K-DH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주도사고 4문항, 경로사고 4문항, 허위문항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로 1점 '분명히 아니다'부터 4점 '분명히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희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주도사고의 Cronbach's $\alpha = .695$, 경로사고의 Cronbach's $\alpha = .689$ 로 다소 낮았다.

3.2.2. 문제행동

문제행동은 Achenbach와 Edelbrock(1983)이 개발한 아동행동평가 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1997)가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K_CBCL)의 자기보고형(Korean Youth Self-Report: K-YSR)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즉, K-YSR의 119문항 중 내재화 문제의 우울/불안 15문항, 외현화 문제의 비행 11문항 총 26문항을 사용하였다. K-YSR의 각 문항은 청소년 자신이 최근 1년 동안에 보인 행동문제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내재화 문제의 우울/불안 Cronbach's $\alpha = .872$, 외현화 문제의 비행 Cronbach's $\alpha = .801$ 로 다소 높았다.

3.2.3. 학업지연행동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지연행동을 측정하기 위하

여 Aitken(1982)의 지연행동 척도(Aitken Procrastination Inventory)를 서은희(2006)가 번안하고 이혜연(2009)이 청소년에게 맞게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만성적인 학업지연행동을 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구별하기 위해 만든 척도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하도록 개발한 척도이다. 자기보고식의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여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전체 문항 중 10문항의 부정문항을 역산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지연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08로 높았다.

3.2.4. 기타 변인

성적은 5점 척도(하, 중하, 중, 중상, 상)로 측정하였으며 그 외로 성별, 연령, 학교급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조사하였다.

3.3. 자료분석

자료는 SPSS PC+ 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초분석을 위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활용하였으며, 농촌 청소년의 희망을 중심으로 집단분류하기 위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희망 군집에 따른 문제행동, 성적, 학업지연행동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변량 분산분석을, 사후검정은 Duncan을 사용하였다.

4. 연구의 결과 및 해석

4.1. 농촌 청소년의 희망에 따른 군집분석

농촌 청소년의 희망에 따른 군집분석을 위하여 희망의 하위영역인 경로사고와 주도사고 변인을 투입하고 희망의 수준에 따라 상, 중, 하로 군집을 산출하도록 군집 수를 3개로 지정하여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은 선행연구(Alexander & Onwuegbuzie, 2007)를 참조하여 군집화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Dendrogram의 형식을 취하는 유형을 활용하였고, 군집방법은 군집 중심 간의 거리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군집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ward 방법(ward's method)을 활용하였다(김석우, 2010).

군집결과 희망이 높은 집단은 186명(M=3.22, 32.1%), 희망이 낮은 집단은 263명(M=2.44, 45.4%), 그리고 중간집단은 130명(M=3.16, 22.5%)으로 나타났다.

〈표 2〉 희망 군집에 대한 기술통계

| | 경로사고 | 주도사고 |
|----------------|--------|--------|
| 군집1: 희망이 높은 집단 | | |
| N | 186 | 186 |
| Mean | 3.2168 | 3.0793 |
| SD | .32244 | .27622 |
| 군집2: 희망이 낮은 집단 | | |
| N | 263 | 263 |
| Mean | 2.4354 | 2.2994 |
| SD | .28543 | .32640 |

| 군집3: 중간집단 | | |
|-----------|--------|--------|
| N | 130 | 130 |
| Mean | 3.1558 | 2.2936 |
| SD | .20763 | .32387 |

4.2.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다음 Pearson 이변량 상관분석과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상관계수와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경로 사고와 주도사고는 성적 및 학업지연행동과 유의미한 변인이었으며,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울과 불안은 유의미한 변인이었으나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행은 주도사고와 유의미한 변인으로, 그리고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사고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변인은 학업지연행동이며 ($r=.280, p<.01$), 주도사고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변인은 성적으로($r=.358, p<.01$)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 청소년의 희망이 문제행동 및 성적과 학업지연행동과 관계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주었다.

<표 3> 변인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 | 경로 사고 | 주도 사고 | 우울/불안 | 비행 | 성적 | 학업 지연 | 평균 | 표준 편차 |
|-------|---------|---------|--------|---------|--------|-------|--------|--------|
| 경로 사고 | 1 | | | | | | 2.8487 | .47203 |
| 주도 사고 | .562** | 1 | | | | | 2.5486 | .47920 |
| 우울/불안 | -.203** | -.239** | 1 | | | | 2.2189 | .63133 |
| 비행 | -.067 | -.103* | .514** | 1 | | | 1.5740 | .44514 |
| 성적 | .261** | .358** | -.057 | -.119** | 1 | | 3.05 | 1.164 |
| 학업 지연 | .280** | .254** | .105* | -.008 | .182** | 1 | 3.0645 | .33126 |

* $p<.05$, ** $p<.01$

4.3. 희망 군집에 따른 차이 분석

농촌 청소년의 희망을 경로사고와 주도사고를 투입하여 군집화했을 때 군집에 따라 문제행동(우울/불안, 비행), 성적, 학업지연행동이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군집분석 결과에 의한 희망의 3개의 집단 즉, 군집1= 희망이 높은 집단, 군집2= 희망이 낮은 집단, 군집3= 중간집단을 독립변인으로, 그리고 문제행동(우울/불안, 비행), 성적, 학업지연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변량 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을 실시하였다. 먼저 변량의 동질성 검정 결과 Box의 $M=31.296(F=1.547, p>.056)$ 로 동질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사후검증은 Duncan을 이용하였으며, 주 효과는 Wilks 람다=.819, $F(8, 1130)=14.862, p<.001$ 로 나타나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내재화 문제행동인 우울/불안은 농촌 청소년의 희망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희망이 높은 집단은 우울/불안이 $M=2.0262$, 희망이 낮은 집단은 $M=2.3559$, 중간집단은 $M=2.2062$ 로 희망이 높은 집단이 우울/불안이 낮고 희망이 낮은 집단이 우울/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외현화 문제행동인 비행은 희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적은 희망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희망이 높은 집단이 $M=3.48$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희망이 중간인 집단과 낮은 집단은 각각 $M=2.95$ 와 $M=2.80$ 로 같은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업지연행동도 희망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이 높은 집단은 학업지연행동이 $M=3.1770$ 으로 가장 높고, 다음 희망이 중간인 집단 $M=3.0726$, 희망이 낮은 집단 $M=2.9799$ 순으로 낮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위의 결과를 종합할 때 희망이 수준이 높은 농촌 청소년은 내재화 문제행동인 우울/불안 수준이 낮고, 성적과 학업지연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표 4〉 희망 군집에 대한 다변량 분산분석

| | 희망이 높은 집단 (군집1) | 희망이 낮은 집단 (군집2) | 중간집단 (군집3) | F | p | ES | Duncan |
|-----------|-----------------------|-----------------------|--------------------|--------|------|------|-----------------|
| | M(SD) | M(SD) | M(SD) | | | | |
| 우울/ 불안 | 2.0262 (.60096) | 2.3559 (.65198) | 2.2062 (.54680) | 15.636 | .000 | .052 | 군집1<군집3 <군집2 |
| 비행 | 1.5298 (.44241) | 1.6029 (.42701) | 1.5670 (.46696) | 1.496 | .225 | .005 | NS |
| 성적 | 3.48 (1.043) | 2.80 (1.150) | 2.95 (1.197) | 20.381 | .000 | .067 | 군집2=군집3 <군집1 |
| 학업 지연 | 3.1770 (.31112) | 2.9799 (.33154) | 3.0726 (.33239) | 20.382 | .000 | .067 | 군집2<군집3 <군집1 |

5. 논의,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농촌 청소년을 대상으로 희망 수준을 파악하고 이러한 희망 수준이 이들 청소년의 문제행동, 성적 및 학업지연행동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파악하여 농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청소년의 희망에 따른 군집분석을 위하여 경로사고와 주도 사고 변인을 투입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희망이 높은 집단, 희망이 낮은 집단, 그리고 중간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경로사고와 주도사고를 투입하여 희망을 군집화한 연구(Alexander & Onwuegbuzie, 2007)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둘째, 상관분석 결과 농촌 청소년들의 희망 하위영역인 경로사고와 주도사고는 내재화 문제행동인 우울/불안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적 및 학업지연행동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현화 문제행동인 비행과는 주도사고만이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이 내재화 문제행동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현미열 등(2003), Snyder 등(1997) 및 Snyder(1994a)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희망이 높은 사람이 목표를 추구하면서 삶을 긍정적으로 유도한다는 점(Snyder et al., 1991)을 고려할 때 희망이 낮은 사람은 반대로 목표를 추구할 때 다양한 경로의 부재로 삶을 부정적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희망과 외현화 문제행동인 비행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오혜진(2006) 연구와 희망과 인터넷 중독이 부적 상관이 있다는 홍예영(2006)의 연구 결과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희망을 주도사고와 경로사고로 분리하여 분석한 박소연(2009)의 연구와 비교할 때 이 연구에서는 주도사고가 비행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자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박소연(2009)의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이 연구의 대상이 농촌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분석도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는 데 있을 수 있다. 반면 박소연(2009)의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의 경우 주도사고와 경로사고 모두 비행의 예측변인으로 나타나 이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였다.

농촌 청소년들의 희망과 성적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nyder(1991, 2000) 및 조한익(200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이유들을 살펴보면 첫째, 높은 희망을 가진 학생들은 낮은 희망을 가진 학생들보다 자신들이 바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고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계속적으로 동기화시키기 때문이거나, 둘째, 희망이 높은 학생들은 희망이 낮은 학생들과 비교해볼 때 학습

에서 적절한 단어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과제에 열중하기 때문이다 (Snyder, 2002). 셋째, 희망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낮은 수준의 희망을 가진 학생과 비교하여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성취하려고 하며, 또한 학습내용을 학습하기 위한 잘 조직된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조한익, 2009).

반면 농촌 청소년들의 희망과 학업지연행동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희망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Alexander & Onwuegbuzie, 2007)와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 희망이 높은 농촌 청소년이 학업지연행동이 높은 이유는 이들이 불쾌해 보이는 과제를 미루는 경향(Solomon & Rothblum, 1984)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학교에서 부여되는 과제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타의적인 것이 대부분이며, 따라서 불쾌한 과제이어서 이를 미루는 경향이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버락치기를 하여 성적이 향상되는 경우와 같이 농촌 청소년들이 지연행동을 하고서도 성공한 경험이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McCown & Ferrari, 1995). 세 번째로 농촌 청소년들이 수동적 학업지연자가 아니라 능동적 학업지연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Chu & Choi, 2005). 즉, 스스로 과제를 미루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마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결과로 희망수준과 학업지연행동이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농촌 청소년의 희망 군집에 따라 문제행동, 성적, 학업지연행동이 차이가 있는지를 다변량 분산분석을 통하여 검증한 결과 희망이 높은 집단은 내재화 문제행동인 우울/불안이 중간 집단보다 낮고 중간집단은 희망이 낮은 집단보다 우울/불안이 더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외현화 문제행동인 비행은 희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적은 희망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성적은 희망이 높은

집단이 희망이 중간인 집단과 낮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희망이 중간인 집단과 낮은 집단은 같은 집단에 속하였다. 또한 농촌 청소년의 학업지연행동은 희망이 높은 집단이 중간인 집단보다 높고, 중간인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희망 수준이 높은 농촌 청소년은 내재화 문제행동인 우울/불안 수준이 낮고, 성적과 학업지연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내재화 문제행동이 높고, 성적이 낮은 농촌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희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학업지연행동의 경우도 이 연구에서 능동적 학업지연자와 수동적 학업지연자를 구분하여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학업지연 행동 자체가 학업을 미루는 행동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또한 필요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 요구된다 하겠다.

끝으로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농촌 청소년과 도시 청소년을 비교 대상으로 표집하여 분석하고 집단간 차이가 있다면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성적은 자기보고식 척도를 통하여 측정하였는데 이보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학업성취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요청된다. 끝으로 농촌 청소년을 충남 서북부 지역 3개 군만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여 전국의 농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의 농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확률표집 등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농촌 청소년의 희망 수준을 처음으로 측정하고 이와 관련된 변인들을 검토하였다는 데 대해 의의를 두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 김석우. (2010).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SPSS·AMOS 활용의 실제*. 서울: 학지사.
- 권경희. (2008). 청소년의 희망 측정도구 개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달숙. (1992). 희망의 간호학적 이론구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숙희. (2000).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희망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희. (2003). 컴퓨터에 거주하는 십대 미혼모의 희망체험: Parse의 연구방법론 적용.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남, & 박영숙. (1999). 양호교사와 일반교사의 영적 안녕, 희망 및 지각된 건강 상태에 관한 연구. *산업간호학회지*, 8(1), 92-102.
- 김택호, & 김재환. (2004). 청소년의 탄력성 발달 과정에서 희망과 삶의 의미의 효과.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6(3), 465-490.
- 김혜경. (2008).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이야기치료 프로그램 개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나혜진. (2009). 고위험 집단 청소년에서 희망과 스트레스 대처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지영. (2004).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기능과 희망과의 관계.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소연. (2009). 청소년의 위험요인과 비행의 관계에서 희망의 조절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승호, & 서은희. (2005). 여자대학생들의 학업적 지연행동의 실패 및 원인 분석. *교육학연구*, 43(2), 115-134.
- 서은희. (2006). 학업지연행동 극복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 하은혜. (1997).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K-CBCL)*.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오혜진. (2006). 부모애착, 친구애착, 희망과 청소년 비행 간의 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숙경. (1997). 완벽성향과 자기개념에 따른 대학생의 지연특성의 차이. 연세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 이혜연. (2009).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부모의 심리통제가 청소년의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경. (2007). 중학생의 희망과 공감 하위집단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751-766.
- 장휘숙. (2004). *청년심리학*. 서울: 박영사.
- 정마리아, 정문숙, & 김신정. (2000). 미혼모의 사회적 지지와 희망. *여성건강간호학회지*, 6(1), 18-33.
- 정운숙. (2002). 가출 청소년의 회귀과정.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한익. (2011). 초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지지, 희망, 우울증 및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25(1), 153-174.
- 조한익. (2009). 사회적 지지와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검증. *초등교육연구*, 22(3), 65-87.
- 조한익. (2007). 대학생의 희망과 학습시간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1(2), 349-365.
- 최상순. (1990). 일지역 성인의 영적 안녕, 희망 및 건강상태에 관한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유희, 이희경, & 이동귀. (2008). Snyder의 희망척도 한국 번역판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2), 1-16.
- 현미열, 이종은, & 박선남. (2003). 청소년의 희망과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2(2), 116-123.
- 홍예영. (2006). 희망과 학업적 성취목표지향성이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금선, 박영희, 임희수, 주기영, 배문혜, & 강현철. (2010). 지역사회거주 만성질환자의 희망, 우울 및 자살사고의 관계. *정신건강간호학회지*, 19(2), 205-211.
- Achenbach, T. M., & Edelbrock, C. M.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Dept. of Psychiatry.
- Aitken, M. E. (1982). A personality profile of the college student procrastinator.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1982).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3, 722-723.

- Alexander E. S., Onwuegbuzie, A. J. (2007). Academic procrastination and the role of hope as a coping strateg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 1301-1310.
- Barnum, D. D., Snyder, C. R., Rapoff, M. A., Mani, M. M., & Thompson, R. (1998). Hope and social support i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pediatric burn survivors and matched controls. *Children's Health Care*, 27, 15-30.
- Chu, A. H. & Choi, N. J. (2005). Rethinking procrastination: Positive effects of active procrastination behavior on attitudes and performanc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5, 245-264.
- Clifford, J., & Brykczynski, K. (1999). Giving voice to childbearing teens: Views on sexuality and the reality of being a young parent. *Journal of School Nursing*, 15(1), 4-15.
- Haycock, L. A., McCarthy, P., Skay, c. L. (1993). Procrastination in college students: The role of self-efficacy and anxiety.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6, 317-234.
- Hinds, P. S. (1988). Adolescent hopefulness in illness and health. *Adv. Nurs. Sci.*, 10(3), 79-88.
- Ferrari, J. R. (2001). Procrastination as self-regulation failure of performance: effects of cognitive load, self-awareness, and time limits on working best under pressur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5, 391-406.
- McCown, W. (1986). An empirical investigations of the behaviors of procrastinations.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 Documents*, 16, 1-89.
- Onwuegbuzie, A. J. (2004). Academic procrastination and statistics anxiety. *Assessment and Evaluation in Higher Education*, 29, 3-19.
- Seligman, M. E. (1995). *The optimistic child*. Boston, MA: Houghton Mifflin.
- Snyder, C. R. (1994a). Hope and optimism. In V. S. Ramachandran (Ed.) *Encyclopedia of Human Behavior*, vol. 2 (pp. 535-542).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Snyder, C. R. (1994b). *The psychology of hope: You can get there from here*. New York: Free press.

- Snyder, C. R. (2000). *Handbook of hope: Theory, measure, and applications*. Orlando, FL: Academic Press.
- Snyder, C. R. (2002). Hope theory: Rainbows in the mind. *Psychological Inquiry*, 13, 249-275.
- Snyder, C. R., Harris, C., Anderson, J. R., Holleran, S. A., Irving, L. M., Sigmon, S. T., Yoshinobu, L., Gibb, J., Langelle, C., & Harney, P. (1991). The will and the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differences measure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570-585.
- Snyder, C. R., Hoza, B., Pelham, W. E., Rapoff, M., et al. (1997).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hildren's Hope Scale.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2, 399-421.
- Snyder, C. R., Irving, L. M., & Anderson, J. (1991). *Hope and health*. In C. R. Snyder & D. R. Forsyth (Eds.) *Handbook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Elmsford, NY: Pergamon Press.
- Snyder, C. R., Lapointe, A. B., Crowson, J. J., Early S. (1998). Preferences of high-and low-hope people for self-referential input. *Cognition and Emotion*, 12, 807-823.
- Snyder, C. R., Parenteau, S., Shorey, H. S., Kahle, K. E., Berg, C. (2002). Hopes as the underlying process in gestalt and other psychotherapy approaches. *International Gestalt Therapy Journal*, 25, 11-29.
- Snyder, C. R., Shorey, H. S., Cheavens, J., Pulvers, M., Adams III, V. H., & Wiklund, C. (2002). Hope and academic success in colleg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4, 820-826.
- Snyder, C. R., Simpson, S. C., Ybasco, F. C., Borders, T. F., Babyak, M. A., Higgins, R. L. (199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tate Hop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21-335.
- Solomon, L. J. & Rothblum, E. D. (1984). Academic procrastination: frequency and cognitive-behavioral correl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4), 503-509.
- Stotland, E. (1969). *The Psychology of Hope*. San Francisco: Jossey-Bass.

논문투고일: 2011. 10. 20

1차수정일: 2011. 11. 25

게재확정일: 2011. 12. 6